특집

규격돈 생산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정 병 규 사무관
(농림부 축산경영과)

1. 서언

돼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규격돈 내지는 수출규격돈 이야기를 한마디씩은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규격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 왜 규격돈을 키워야 하는가, 정부는 왜 규격돈을 키우도록 장려하고 있는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규격돈 생산장려시책을 펴온 정부 실무담당자로서 '99년부터는 규격돈 생산장려금으로 알려진 품질개선비 지원중단을 맞아 지금까지 정책추진과정에서 느낀점과 향 후 정부의 추진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2. 규격돈을 왜 키워야 하는가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목적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지도 않는 돼지를 키우는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마치 정부가 수출확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농가에게 불리한 돼지를 키우도록 유도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그간 엄청난 정책적 실수를 해온 것이 될 것이다.

규격돈이란 학문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고 유통상인들간에 회자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는 일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규격돼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국내유통업자들간에도 규격돈 개념은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지육유통에서도 선호하는 돼지가 바뀌고 있다. 과거 부위구분이 없던 때에는 정육점에서도 육질이 연한 중돼지를 선호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정육점에서도 부위별 구분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체중대가 큰 돼지가 도매시장에서 고가로 경락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농가에서 규격돈을 키우는 것은 정부정책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기 때문에 키우는 당연한 경제행위인 것이다. 그런데도 농가입장에서 규격돈보다 비규격돈을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는 아직 외국산 수입량의 비중은 낮은 반면 종합처리장 건설과 수출확대 등으로 육가공

앞으로 수입육 비중이 늘어나고 특히 냉장육 수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비규격돈은 판로를 잃어버리는 극단적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농가가 규격돈을 키우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곧 올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수요가 급팽창되면서 국내규격돈 부족으로 전체돈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비규격돈 가격도 높게 유지되는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수입육 비중이 늘어나고 특히 냉장육 수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비규격돈은 판로를 잃어버리는 극단적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농가가 규격돈을 키우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곧 올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3. 규격돈 개념을 바로 세우자

그런데 규격돈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전체비육돈 = 규격돈으로 사용되면서 규격돈 생산목표가 흐려진 느낌도 든다. 규격돈이란 국내소비자, 유통업자들이 원하는 돼지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내유통형태,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 규격돈의 정의는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규격돈이라고 볼 것인가. 현재 국내유통형태는 지육유통에서 가공과 판매기능이 분리되는 부분육유통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부위별 선호도가 뚜렷해짐에 따라 지육째로 가져가 정육점내에서 잘라서 판매하는 전통적 판매방식에서, 가공은 육가공에서 하고 대형판매점들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부위를 육가공에서 납품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한편 수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규격화된 외국산 부분육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하고 국내판매가 어려운 비인기부위에 대해서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돼지고기 유통추세로 보아 규격돈이란 위생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고 내수 및 수출시장 모두에 적합한 돼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안전성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돼지 체내잔류물질과 질병문제이라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규격에 있어서는 단순히 싸이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제품의 품질을 포함한 어떤 표준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제품의 품질 및 싸이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이 있어 구체적인 규격돈의 정의문제에 들어가면 다소 의견차가 있는 것 같다.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수율, 부분육의 규격이 중요한 품질기준이겠으나, 최종소비자에게 있어서 제품의 품질기준은 육질과 맛, 색과 냄새이다. 그러다 보니 규격돈의 체중대, 사육일령, 수퇘지 거세문제에 대해서 의견차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규격돈 생산확대를 위해서는 규격돈에 대한 개념차이를 접근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의 육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내수와 수출의 조화를 생각한다면 수율이 좋으면서 육질이 우수하고 규격은 적당한 돼지를 즉, 우리가 이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향 후 정부의 지원방향은 무엇인가.

규격돈이 억지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라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거래되도록 해야지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농가에게 규격돈 생산 장려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시장수요자들이 농가에게 지불해야 될 돈을 왜 정부가 대신 지불하는가 하는 비판이 일리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원을 계속해야만 생산이 되는 규격돈이라면 수요와 공급의 시장구조를 왜곡시킬 뿐 지원할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유통흐름이 정착될 때까지 잠정기간 동안만 지원을 하여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파악해야 하겠다.

그간 정부는 비육후기사료 사용장려, 거세, 체중대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책을 펴왔다. 그 결과 농가에서 규격돈생산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생각된다. 수퇘지 거세를 실시하고 체중대를 고르게 하여 출하하고 잔류항생물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돼지사육 농가의 인식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규격돈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체중대 등 형식적인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아직까지 비육후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지 않아 육질이 약한 것은 물론 잔류항생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냉장육 유통체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육질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단체 등 안전성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항생물질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현실이 뒤따르지 못하여 안전성 검사가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에는 안전성은 기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99년부터 규격돈생산에 대한 보조금 성격을 갖는 지원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다만, 농가 위생개선을 위한 지원이나 비육후기사료급여확대를 통한 사육일령 조정을 위한 지원(운영자금지원)은 어떠한 이름으로든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통현실의 발전에 맞추어 농가가 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등급제를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養豚

정부는 '99년부터 규격돈생산에 대한 보조금 성격을 갖는 지원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다만, 농가 위생개선을 위한 지원이나 비육후기사료급여확대를 통한 사육일령 조정을 위한 지원(운영자금지원)은 어떠한 이름으로든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통현실의 발전에 맞추어 농가가 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등급제를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